

전남교육청 “냉철한 성찰·따뜻한 협업” 핵심사업 워크숍

팀장급 이상 간부 참석 전남미래교육 방향 논의 혁신학교 전면화 위한 협업 필요성 등 의견 제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지난달 28일~29일 진도 솔비치에서 ‘냉철한 성찰과 따뜻한 협업으로 미래를 여는 전남교육 실현’을 주제로 ‘2020. 전남교육정책 핵심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간부 및 팀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0년 핵심사업 평가 및 2021년 사업방향 등을 공유했다. 특히, 전남 미래교육 종합발전방안 추진과제를 토의하고, 전남교육청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급 이상 간부들의 소통을 통한 협력의 조직문화 형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각 과별 핵심사업에 대한 집단토론에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진행된 각

부서의 사업들을 공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2021년 사업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다.

또, 학교 조직문화 개선 지침 마련, 감사 추진 과정에서 학교현장의 부담 최소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혁신학교 전면화 위한 협업 필요성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 열린 전남 미래교육 종합발전방안 원탁토론에서는 ‘내 삶을 준비하는 역량중심 교육 실현’ ‘공정과 포용의 책임교육 구현’ ‘교육활동 중심 행정과 인사혁신’ ‘자치와 협치의 교육생태계 구축’ 등 단계별 실행 방법이 논의됐다. 이 시간에는 분임 별 활발한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발표하는 등 집단 지성을 발

휘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를 동안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 끝까지 함께했다. 특히, ‘교육감과 대화’ 시간을 마련해 팀장들과 활발한 토론을 했다.

토론에서 소수자력이 승진과 근무지 배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여성 관리자 진출 기회 보장, 새로운 사업 추진 시 업무량 고려, 기초학력 전담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과 확대 등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었다. 교육감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앞으로는 국장들을 중심으로 직원들을 믿고 전남 교육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워크숍이 형식적 관행적 평가에서 벗어나 건강한 비판과 집단지성의 시너지 발현을 통해 협력적·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팀장들은 “본청 각 실·과에서 추진한 핵심사업에 대해 토론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그간 국간 과



간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생김 오해를 풀 수 있었으며,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론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문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잘 정리해 앞으로 전남 교육 정책 수립과 집행, 현재 마련중인 전남 미래교육 종합발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나주교육청, 학생들 놀 권리 찾아 주다

신체활동으로 스트레스 해소·공동체 교육 실천하는 프로그램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길)은 2020년 9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5개교에서 굿네이버스와 연계하여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놀이공감키트 놀 권리’ 찾기를 진행하였다.

‘놀이공감키트 놀 권리’ 찾기는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놀이를 통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놀이과정 중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배우게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에게 놀이문화를 통한 신체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공동체 교육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학교는 놀이감이 부족한 학생수 50명 이하 소규모학교이며, 5개교(왕곡초, 다시초, 다도초, 봉황초, 공산초)가 기본형으로 진행되

고 그 중 2개교(왕곡초, 다시초)가 심화형으로 운영되었다. 굿네이버스, 기아자동차의 협조로 참여 학생 전교생에게 보드게임, 색연필, 인형, 슬라임, 자동차블록 등 맞춤형 놀이키트 꾸러미 상자가 제공되고 학교 및 학급에는 쉬는 시간·점심시간 여러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보드 놀이게임 등이 제공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먼저 놀이 규칙 정하기를 통해 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것에 대하여 약속 후 ▲풍선모시기 ▲신문지로 공 튀기기 ▲판 뒤집기 ▲몸으로 만들어요 ▲릴레이 신체놀이 등으로 이루어졌다. 놀이 활동을 통한 또래관계 형성 및 즐거움을 배우는 등의 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순천대 우주항공공학과 로켓연구팀, ‘전국대학교 로켓학술대회’ 대상

2년 연속 대상 수상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우주항공공학과 학생들이 구성된 로켓연구팀이 최근 열린 ‘제29회 전국대학교 로켓학술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대학교 로켓학술대회’는 전국대학생 로켓연합회와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였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대통령비서실 등 20여 개 주요 기관들의 후원을 받아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순천대,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항공대 등 전국 13개 대학의 로켓연구팀들이 참가하였으며, 각 팀은 자체 로켓 설계 기술 학술논문을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차세대 로켓 전문가를 육성하는 자리를 가졌다.

순천대학교에서는 발표자 최모건(우주항공공학과 4학년), 김지웅(기계우주항공공학부 1학년)을 비롯한 13명으로 구성된 로켓연구팀이 이희남 교수(우주항공공학과)의 지도를 받아 각운동량보존법칙을 이용한 로켓동체의 회

전운동 역제용 반작용을 설계하고, 3D 프린팅으로 제작하여 자체 설계·개발한 고체추진 로켓에 탑재했을 때의 성능에 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실험적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여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순천대팀은 2019년 처음으로 본 대회에 출전하여 대상을 받은 바 있으며, 2020년 대회에서도 로켓연구 경쟁에서 국내 유수의 대학들을 물리치고 2년 연속 최고상을 받아 대학의 명예를 드높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광주 대촌중양초, ‘저학년 놀이마당 재능기부 수업’ 실시

‘전래놀이’·‘신발 던지기’·‘포토존’ 등 7개 놀이마당으로 구성

대촌중양초가 코로나 블루 예방 및 극복을 위해 지난달 30일 강당에서 학부모회 주관 ‘저학년 놀이마당 재능기부 수업’을 실시했다.

‘저학년 놀이마당 재능기부 수업’은 전면 등교 후 또래 간 어울림이 부족한 저학년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길 바라는 학부모회 소속 어머니들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기획해 마련됐다.

‘저학년 놀이마당 재능기부 수업’은 ‘전래놀이’, ‘신발 던지기’, ‘포토존’ 등 7개 놀이마당으로 구성됐고, 학생들은 놀이를 통해 배움을 체득하는 기회를 가졌다.

5~6명씩 구성된 모둠은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학부모 어머니들과 놀이마당을 돌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포토존’에서는 초등 학교에 첫발을 내디딘 1학년 학생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촬영된 사진을 액자에 담아 늦게나마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대촌중양초 1학년 한 학생은 “신나게 놀게 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고, 맛있는 음식과 선물도 많이 받아 오늘이 내 생일 같다”며 “이런 행사가 계속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부모회 소속 한 어머니는 “놀이마당을 준비하며 불안함도 있었지만 저학년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해 주고 싶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재능기부를 통해 행복해지는 아이들을 보니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

조인호기자

